광주 먹여 살릴 AI·미래차·스마트에너지 신산업 허브 육성

광주, 민주화 도시 넘어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2〉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남·북·광산 4개 지구 4.371㎢ 입주기업 조세감면 등 혜택 2027년까지 기업 800여개 1조 6279억원 유치 목표

지난해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주 경자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AI(인공지능) 경제자유구역'을 목표로 한다.

'광주형 일자리'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게 핵심 임무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특별 구역을 지정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제도인데,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지정됐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기업에는 규제 특례 적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민선 7기 1호 공약이기도 한 광주경자청은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의 미래가 달린 AI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너지·에어 가전·생체 의료 등 대표 산업 분야와 연계해 연구 개발(R&D)과 제품 혁신으로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쿠팡 등 대규모 투자유치 줄줄이 성공=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광주시 산하 출장소 조직으로 출범했다. 1급 상당인 청장과 혁신성장본부장(3급), 3부(부장 4급) 9팀(팀장 5급) 등 총 45명 정원으로 구성됐다. 전국 경자청 중 임기제 공무원 구성 비율이 최고 수준(15.6%)으로, 투자 유치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악재속에서도 미국 등 외국기업협회 등과의 온택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주력사업 및 고부가 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실적을 냈다. 이미 자동차, 에너지, 가전분야 기업 20개사를 비롯한 핵심전략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업무 협약 49건 등 총 69건의 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협약 기업 전담관리를 통해 조기 실투자에도 성공했다. 쿠팡은 지난해 9월 2000억원 규모의 호남권물류기지를 착공했고, 2000여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세방리튬배터리도 1150억원을 들여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짓고, 200여명을 고용한다.

광주시는 광주경자청의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투자유치 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경자청은 광주시와 함께 최근 3년간 177개 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해 84개 기업이 1조 1843억원을 투자하고, 4784명을 고용 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광주경자청은 오는 2027년까지 기업유치 800개를 비롯한 총 1조6279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생산 10조3000억원, 부가가치 3조2440억원, 신규 취업 5만7000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자청의 설명이다.

◇광주 3개 자치구 내 4개 핵심사업 추진=인공지능(AI) 등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본거지로 자리잡고 있는 광주경제자유구역은 광주 남·북·광산구 일원 4개 지구, 총 437만1000㎡(4.371㎢) 규모다. 지구별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광산구 덕림·본량동) 184만7000㎡ ▲AI 융복합지구(북구 오룡·대촌·월출동, 광산구 비아동) 110만6000㎡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Ⅰ(남구 압촌·석정·지석·대지·칠석동) 93만2000㎡ ▲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Ⅱ(남구 압촌·지석동) 48만6000㎡ 등이다.

개발사업 시행은 광주시, 한국 토지주택공사, 광주 도시공사가 맡아 공영개발로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자동차 3359억원, AI 3694억원, 에너지Ⅰ 4048억원, 에너지Ⅱ 1332억원 등 1조2433억원이다. 토지 용도별로는 산업시설 47%, 지원시설 38%, 주거 13%, 상업 1%, 기타 1%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가동 등 성과=광주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다. 광주경자청은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와 AI기반 융복합산업을 결합시켜 광주만의 차별화한 비전과 강점을 갖춘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에너지·에어 가전·생체 의료 등 대표 산업 분야와 연계해 연구 개발(R&D)와 제품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빛그린산단)는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육성된다. 이미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등은 운영에 들어갔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불모지였던 광주에 완성차 10만대 생산규모의 자동차공장이 들어섰고,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으로 광주 산업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기업이 광주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 활동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2일 오후 여수시 문수동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 활동에 참석, 외벽페인트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 글로벌 메디시티 도약 꿈꾼다

새 정부에 서남권원자력의학원·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 건의

광주시가 '글로벌 메디시티' 도약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새 정부에 지역 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광주 의료 관련 기업은 501개, 매출액 1조840억원, 종사자 수 4524명에 달한다. 비약적인 성장에도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대구, 오송, 원주 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3000억원, 고용 9000명, 기업 2000개 달성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 국비와 민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특히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메디 헬스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원자력의학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지역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해 난치 암 전문 진료, 영광 한빛원전 등 방사능 사고 대비, 해외환자 유치 체계를 갖추려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힘쓰고 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는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면역·재생 바이오산업 특화, 인공지능 융합 정밀 의료산업 거점 조성, 감염병 대응 등을 지향한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경제, 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당위성을 건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교조 출신 정성홍·김선호 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전교조 출신인 정성홍, 김선호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12일 양 후보 측에 따르면 양 후보는 14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단일화 기구 구성과 참여 방법, 향후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정 후보와 김 후보 간 단일화는 예측됐었다.

양 후보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3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지난 12년간 학력 저조, 사립학교와 갈등 논란 등 교육행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교조 출신인 양 후보만의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 파괴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출신 후보들 외 후보와 2차 단일화 여부가 모색될지도 관심사다.

비전교조 출신 모 광주시교육감 후보 측은 "전교조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어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에 조심스럽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 김 후보 외 이정선, 박혜자, 이정재, 강동완 등 6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광주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과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 일원화 ▲입주자 등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 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마련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 등을 통한 관리비 횡령논란 사전 방지 ▲입주자 등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 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